

동성애와 문화

제2회 ▶ 동성애 문화의 이해 〈그들만의 삶과 공간〉



●한경훈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LA)에서 상업음악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KBS에서 다수 프로그램 음악감독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로 재직중이고, 방송음악가로도 활동중이다.



1. 들어가며

많은 인류학자들은 ‘모든 행위가 공간 속에 위치해 있고 구성되어 있다’고 개념 짓는다(Lawrence-zúñiga and Low 2003).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과 타인에 대한 범주화를 형성하기 위해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동성애자들 역시 일반인의 수에 비해 양적으로 소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적 지향 및 동성간 성행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느 곳이나 갈 수 있고 어느 곳이나 존재하겠지만, 이번 2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주로 찾는 공간들을 살펴보고 그 공간 속 행위들을 논하여 봄으로써, 정서적 혹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나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의 정체체성과 삶의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여러 커뮤니티, 그리고 이를 후원하고 보호하는 조직들과 기관에 대해서도 소개함으로써 국내 동성애 인구의 확산 요인을 유추해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 사회의 보장 체계가 얼마나 발전되어 왔는지 그 현주소 또한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동성애자들이 만남을 갖는 장소 유형과 시대 변화

동성애 남성들(이하 게이)의 경우, 만남을 갖는 장소가 의외로 매우 다양했고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다. 물론 함께 여가를 즐기고, 바(술집)에서 수다를 떠는 등 일반적인 연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다수의 관련 서적들과 연구자료 등을 참고할 때, 대다수의 게이들은 동성 성관계만을 위한 짧은 쾌락적 만남을 추구했다. 파트너 또한 지속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고 매회 다른 파트너, 즉 처음 만나는 낯선 동성애자와의 성관계를 선호하였다. 이는 게이들의 성적 지향성이 동성애에 대한 정신적 '사랑'보다도 육체적 '쾌락'을 위주로 형성되었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게이들이 주로 만남을 가져온 장소들은, 동성애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소식지, 잡지 등을 종합해 본 결과 대도시의 극장 화장실, 게이바, 게이사우나, 공원 공중화장실, 터미널 공공화장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희일, 버디 1998).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정보 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공간 역시 동성애자들의 만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동성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터미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비밀스러운 성관계는 줄어들고 사적인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

다. 다만, 청소년과 같이 물질적 여유가 없는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공원 화장실 등을 성관계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시대적으로 볼 때, 1950년대부터 2002년까지 이태원 지역을 제외하고 게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던 장소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극장을 끼고 있는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로 낙원동의 경우 <파고다극장>이 1970년대 중반에 개관한 이후 1970년대 후반에 본격적인 게이바가 들어왔다. 신당동과 낙원동에 게이 커뮤니티를 형성, 발전시키다 신당동이 축소되고 낙원동이 확대된 데에는 극장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서진, 2007).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친구사이> 사이트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파고다극장>은 80년대 게이들의 크루징 장소였다'라고 한다. 크루징Cruising의 뜻은 '극장, 터미널 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게이들이 섹스 파트너를 찾는 행위'를 뜻한다(리그베다 위키 참고). 1970년대 후반부터 파고다극장을 중심으로 종로 일대에 게이바가 생기기 시작하여 '게이 DVD방' 등의 게이 업소가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90여 곳까지 증가하였다. '게이 DVD방'은 개별 상영 룸이 있는 일반적인 DVD방과는 다르다. 메인 영화를 상영하는 커다란 홀이 있고, 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화를 보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눈을 맞추다가 크루징이 성사되면 별실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게이 DVD방'은 씻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불결하였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태원이 주목을 받았고, '파슈'라는 게이바를 필두로 많은 동성애 업소들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종로보다 더 성행을 이루게 되었다. 이태원의 게이바들은 무섭게 젊은 동성애자 층을 흡수해 나갔다. 이곳을 찾는 게이들이 주로 2-30대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제스처들도 종전의 방식보다 더 개방적이 되었다고 한다(동성애 전문지 버디 6호 참고).

현재는 '게이극장'이나 '게이 DVD방'은 잊혀진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태원을 중심으로 게이바 업소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게이 클럽 등을 통해 많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동성간 성매매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개인들 간 섹스파트너를 찾아 1회성 성관계를 즐기는 장소로는 누구나 입장료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게이 사우나'라는 업종으로 사위시설을 갖춘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또한, 여성 동성애자(이하 레즈비언)를 위한 '레즈비언바,' 그리고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트랜스젠더) 혹은 성전환자(트랜스섹슈얼)들이 종업원으로 공업과 술집매를 하는 '트랜스젠더바' 등이 홍대와 이태원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3. 동성애자들의 만남을 위한 상업 공간과 야기되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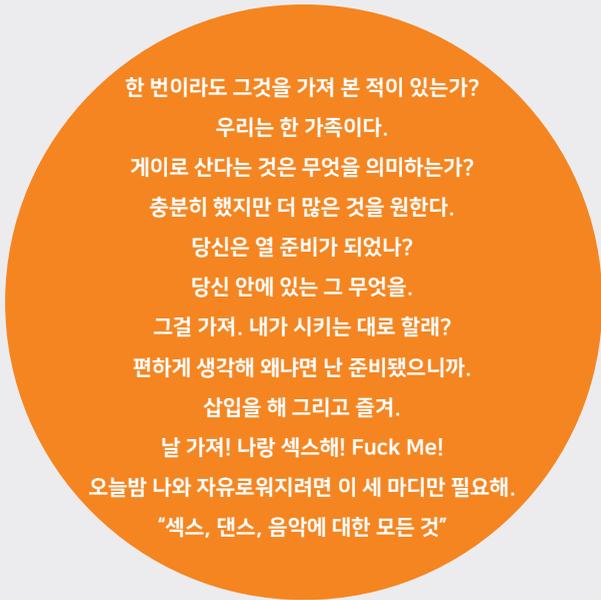
1) 게이바 및 게이클럽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 권리 보호 단체 중 하나인 <친구사이>가 정식 시민단체로 출범한 1994년 즈음만 해도, 이 단체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건전한 정치 단체로 재현되는 일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이지만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일부일처제 개념의 순수한 사랑을 주장하며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회원들을 관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전후를 거치면서 이태원에 많은 게이바와 게이 사우나 등이 생겨나며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게이들의 성적 소비 성향이 물밑듯이 표출되었다. 조성배(2003)의 연구에서 게이활동가 박철민은 이와 같이 말했다.

“저는 98년, 99년, 2000년까지는 <친구사이>가 주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구사이>는 변방이에요. 사우나, 찜질방, 게이바 같은 데서 더 즐겁게 게이생활을 할 수 있고, 굳이 <친구사이>가 아니더라도 너무 쉽고 편하게 연애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같은 상업시설이 가져온 동성애 확산의 여파는 너무나 크다. 동성애 인권에 대한 진지한 담론과 사회운동조차 쉽게 가져오지 못한 동성애의 자유를 이곳, 게이바와 게이사우나 등을 통해 마음껏 성취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게이 소비 공간에서 실행되는 집단적인 쾌락의 향연을 통해 자신이 가진 성적 지향에 대해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더 큰 쾌락 공동체를 조성하게 되며 그들만의 과감함과 자유를 더욱 견고히 하게 되는 것이다.

이태원의 한 게이바가 개업 1주년 파티를 맞아 광고 문구로 내걸었던 내용을 보자.



그렇다. 업소가 내건 홍보문구만 보더라도 게이바에 방문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동성간 성관계를 위한 즉석 파트너 찾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성애자들이 찾은 일반 술집과 클럽에서도 소위 원나잇 성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우연한 만남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화장실에 콘돔을 비치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게이바와 게이클럽 화장실에는 언제나 공짜 콘돔이 수북이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iSHAP(보건복지부 산하 동성애자 에이즈 예방홍보교육사업센터)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것인데, 이 한 가지 불편한 사실만으로도 게이바에서의 만남이 언제든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동성간 성관계로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게이바는 술집의 형태이고 게이클럽은 술도 마시고 춤도 출 수 있는 장소이다.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게이바와 클럽은 다 이태원에 밀집해 있는데, 이 밀집된 길을 일명 ‘게이골목’ 또는 ‘Gay Hill(게이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태원의 게이바나 게이클럽들은 주변의 골목을 돌다 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반인이 본의 아니게 우연히 방문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혹시 모를 게이의 크루징에 대해 정중하게 일반인임을 밝히면 강제 추행과 같은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게이바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하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 등은 삼가야 한다.

2) 변종 게이바(클럽)에서 자행되는 퇴폐적인 불법 성매매

2014년 2월, JTBC뉴스를 통해 ‘이태원 등의 게이바에서 동성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간 바 있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찾아간 이태원의 한 게이바에서 업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견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얼굴이 괜찮게 생겼는데. 우리 집에 오면 선택이 잘 될 것 같아서… 뭐 남들 다하는데…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불법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괜찮아. 안심해도 돼. 아무 이상 없어. 법에 걸릴 것 하나도 없어.” 게이바 업주의 말이다.

또한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에 따르면, 변종 게이바의 영업행태는 불법 성매매가 자행되는 어느 룸살롱이나 호스트바와 다르지 않고 한다. 손님을 접대하는 남자 종업원을 ‘선수’라고 부르는데, 남자 선수들이 룸에 들어오면 남자 손님들이 파트너를 선택해 밤새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하고, 때로는 성관계를 위해 2차를 나가는 것. 남자 선수들은 손님들이 좋아하는 T팬티를 입고 페로몬 향수를 바르는데, 남자 선수들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나가면 곧바로 다가와 허리를 껴안고 목덜미를 애무하는 등 낮뜨거운 스킨십 장면이 연출된다. 테이블 팁은 선수 1인당 5만 원이고, 2차를 나가게 되면 15만원을 더 받는다고 한다. 성관계를 위해 2차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들의 부류는 의사, 변호사, 자영업자 등 엘리트 층도 많으며, 아내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손님의 성적 취향은 남자 역할을 하는 ‘탑’ 또는 여자 역할을 하는 ‘바텀’ 등 다양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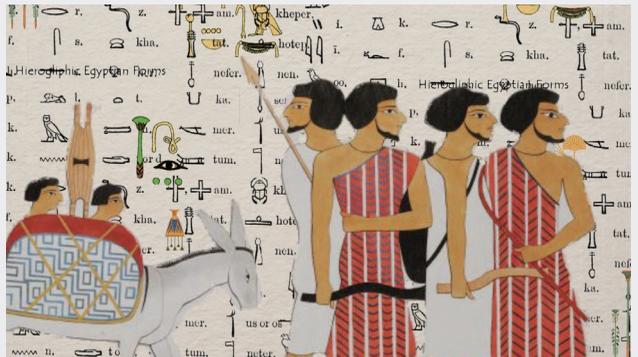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부분의 접대부들이 일반적인 이성애자 남성들이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그들은 ‘웨이터 구함’이라는 평범한 구인광고를 통해 면접을 보러 왔다가 짧은 근무시간에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소위 동성애 성매매를 하는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업소당 많게는 20명씩 이 같은 접대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중 90% 이상은 일반 이성애자이며 많은 경우가 대학생 또는 젊은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동성애자인 남자 손님과 직업적으로 성관계를 맺음으로 단시간 고수익에 이끌린 일반 이성애자들도 동성간 성행위를 경험하게 되고, 이 또한 동성애자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게이 사우나(게이찜방)

‘게이사우나’는 게이 사이에서 음성적인 만남의 장소 중 하나로 ‘게이찜방’ 등으로도 불리지만 대부분이 **휴게텔**이라는 업종으로 신고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한다. 입장료는 만 원 안팎으로 저렴해서 주로 돈이 많지 않은 동성애자들이 쉽게 파트너를 만나 자유로운 성관계를 맺기 위해 이용한다. 게이찜방이 생기면 그곳에 대한 평가가 동성애자 사이트를 중심으로 평이 내려지게 되고 이용자가 많다는 곳으로 몰려들게 된다. 종종 동성애 커플끼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게이들 사이에서는 전혀 모르는 동성과의 즉석 성관계만을 전제로 이곳을 찾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이사우나(게이찜방)는 일반 찜질방과 유사하지만 조명을 어둡게 하고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몸으로 벗고 다닌다. 그 때문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도난사고와 분실사고도 일어난다고 한다. 이용객들은 락커 키를 차는 위치에 따라 성 역할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탑’ 역할은 오른손에, ‘바텀’ 역할은 왼손에, 둘 다 가능한 ‘올’의 경우는 발목에 락커 키를 참으로써 입장객들 사이에 자신과 맞는 파트너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무언의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몸으로 오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만나면 바로 동성간 성관계를 맺는다.

찜방 내에는 에이즈 예방 차원에서 콘돐이 비치되어 있으며, 관계 후에는 화장실 변기 옆에 마련된 관장용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하체 부위를 씻을 수 있다. 항문색소의 특성상 변과 오줌, 정액 등의 배설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청소와 위생관리가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안전한 위생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이용하고 청소조차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이 최대의 문제점으로 꼽히며 각종 질병과 성병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다.



4.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와 지원 단체

원고를 작성하면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부득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적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행여 모든 동성애자가 위와 같이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 가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발상이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동성애자의 일상적인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필자가 조사한 수많은 자료들 속에는 동성애자들의 삶 속에 그려지는 생활 방식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들과 인권 내지는 외로움과의 싸움, 편견적 시선 속에 받는 극단적 고통까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피해자적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그렇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떤 것을 수용해야 하고, 어떤 것을 배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사회적인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혼돈의 상태에서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였고, 소수의 동성애자들은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어 왔다.

그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수많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극소수인 반면, 동성애를 보호하고 후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매우 다양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아래와 같이 수많은 동성애 옹호 단체들을 열거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단체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대화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함이다.

1) 퀴어락(<http://queerarchive.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한국성적소수자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기록들을 수집·정리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으로 공유, 검색,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동적인 인적, 지적교류와 증진을 이루기 위해 <퀴어락>을 기획, 한자의 '즐거움'의 의미를 담아 퀴어의 즐거움이 되는 아카이브가 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 퀴어락은 현재 약 2000여 편의 국내외 성소수자 관련 도서, 문서, 영상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공 아카이브이다.

2)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https://chingusai.net>)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1994년 2월에 결성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이다. 동성애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건강한 동성애 문화를 개발, 확산시키며 에이즈 예방운동 및 HIV 감염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사지침서,'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지원 네트워크,' '에이즈 감염자 자조모임,'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 인권 길잡이' 등의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3) 한국레즈비언상담소(<http://www.lsangdam.org>)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들의 다채로운 삶과 고민으로부터 구체적인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는 여성 이반(통상적으로 '일반'에 대비되는 뜻으로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은어) 권리 운동 단체이다. 레즈비언 한 명 한 명이 지닌 서로 다른 욕망을 존중하며, 금기를 부수고 규범의 선을 넘는 여성들을 지지한다고 명시한다. 정기 상담, 레즈비언 여름학교, 독서모임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커뮤니티를 이룬다.

4)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http://quvkorea.tistory.com>)

61개 대학 내 67개의 동성애 단체들의 연합. 1995년 3월 연세대학교 '컴투게더'를 필두로 대학 내 성소수자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신장, 그리고 대학 내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며 대학성소수자모임 간 교류를 증진하고, 서로의 맥락을 공유하며, 당연한 평등과 인권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실고자 활동한다. 지난 2013년 5월, 대학성소수자모임 일동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5) 성소수자 부모모임(<http://www.pflagkorea.org>)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가시화되면서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부모도 늘고 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자녀의 성적체성을 알게 되어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며 악화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신앙과의 갈등에 대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이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정기 모임 및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LGBT 부모모임 초청 포럼과 같은 성소수자 부모모임 자체 행사 외에도 퀴어문화축제나 다른 단체와의 연대행사, 거리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http://lgbtpride.or.kr>)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1997년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으로 출발하여 2015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 성평등, 차별금지법, 에이즈 교육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단체이다.

7)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http://sqcf.org>)

동성애문화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다. 한국퀴어영화제와 퀴어음악인들의 공연, 퀴어 퍼레이드 등을 기획함으로 동성애 문화를 대중에게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8) SOGI법정책연구회(<http://sogilaw.org>)

SOGI법정책연구회(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와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년 8월에 발족한 연구회이다. 국내외 변호사와 전문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소송 대리 및 자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 기획신청, 대리(서울서부지법 외 다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자문 활동(국가인권위원회 등).
- SOGI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대법원 선고 건을 중심으로), 군형법과 동성애(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주최) 등의 주제로 다수 학술대회 개최.
- 조사연구: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발주 연구용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연구용역) 등.
-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3년~2017년(총 5회 발간)

특히, <한국 LGBTI 인권현황> 연간보고서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매년마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적 현황, 피해사례, 인권운동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관한 인권 이슈의 목록을 참고하여 '범죄화,' '차별철폐와 평등,' '고용,' '재화와 서비스 이용,' '교육/청소년,' '군대' 등 20여개 내외의 세부적인 영역을 나누어 작성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인권 현안들을 번역하여 동성애 정책이 앞서있는 국가들에 알릴 목적으로 영어판도 발간하고 있다.

9)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http://www.kscrc.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2002년 설립 당시부터 단체가 존립해야 할 이유와 가치로, 5대 활동방향인 '1. 열린 연대, 열띤 연대,' '2. 연구와 교육 활동,' '3. 문화 활동을 통한 인권 향상 도모,' '4. 새로운 활동 영역과 주제에 도전,' '5. 성적소수자 내의 약자와 소외에 관심'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발표, 인터뷰/자문, 동성애 전문지 발간 및 언론보도, 성명서/공문. 기타 행사 개최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10) 동성애자에이즈예방&지원센터 아이샵(<http://www.ishap.org>)

iSHAP(아이샵)은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의 명칭이다. iSHAP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iSHAP은 동성애자 상근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동성애자 자원봉사자들, 여러 동성애자 단체 및 에이즈 관련 단체 등의 협력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iSHAP은 한국 동성애자들의 HIV/AIDS 예방, 감염인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11) 기타 민간교류 단체들

그 밖에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민간 주도의 동성애 교류 커뮤니티가 온·오프라인 상에 존재한다. 대표적 커뮤니티 중 하나로 IVAN CITY(<http://www.ivancity.com>)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각기 다른 동성애자들끼리 서로의 성적 취향을 공유하고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 등 적극적인 실제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커뮤니티이다.

5. 글을 맺으며

앞서 동성애자들의 성적 행위(남성 게이 사례를 중심으로)의 여러 가지 실태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장소와 공간을 중심으로 논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동성애자들의 체계적인 네트워크와 인권 보호를 돕는 여러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필자는 적잖은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앞서 살펴본 남성 동성애자들의 삶은 극단적 퇴폐와 향락을 추구하는 그릇된 인간의 표상이며,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숨겨 놓았던 극도로 타락한 본성의 무분별한 표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솔직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게이 남성들의 이 같은 원타임^{one-time} 사랑은 어떠한 관점으로 봐도 전혀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모범적이지도, 아름답지도, 고상하지도, 순결하지도 않다... 다시 말해, 이를 권장하거나 나아가 이를 보호해주어야 할 어떠한 가치도 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같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포함한 지속적인 권리 주장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대중의 '차별'과 '혐오'를 발판으로 과잉적 보호를 받아 지난 15년여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들의 결렬한 저항운동에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가능해졌고, 지금과 같은 견고한 보호막과 옹호 세력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게 된다.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아무리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을 한다 하더라도 동성애자 역시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진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마땅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규범 안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성관계와는 다른 행위들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성적인 행동 양식과 특수한 공간들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해 본다. 다만, 이 같은 성정체성의 혼돈이 가져온 시대적 현상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모두가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봐야 할 중대한 시점이 온 것만은 분명하다. 모든 종류의 욕망은 절제와 인내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각고의 노력과 고통까지도 요구되어진다. 현시대는 참으로 피상성의 시대이다.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든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저 만져지는 것을 붙잡고, 보여지는 것을 받아들이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만족, 그것이면 족하고, 그것이 내 행복의 전부인 듯...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본질적 행복은 무엇인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